즉시 배포용: 5/7/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ICYMI: 주지사 CUOMO: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은 임금을 인상 받을 자격이 있다

지난 밤에 Andrew M. Cuomo 지사는 뉴욕타임즈에 의견을 게재하여 주 노동부 커미셔너 대행 Mario J. Musolino에게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 임금을 조사하고 인상을 권고할 임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할 의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컬럼 기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도 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정부의 모든 레벨의 리더들이 고심하고 있는 전국적 문제입니다. 미국 자본주의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았지만, 한 때 기회는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동성이라는 이상은 정체라는 현실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층부를 끌어 내림으로써 소득 격차를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 하층부를 들어올림으로써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최저 임금부터 시작하여 노동 기준을 올림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2013년에 뉴욕주 최저 임금을 $7.25에서 $8.75로 인상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본인은 그것을 다시 뉴욕시의 경우 $11.50로 그리고 주의 기타 지역은 $10.50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그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체하는 동안 본인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 법률은 노동부 커미셔너가 특정 산업 또는 직군의 임금이 해당 근로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지탱하기에 충분한지를 조사하고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적정 임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권고하기 위한 임금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커미셔너에게 부여합니다.

목요일에 본인은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 임금을 조사하기 위해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커미셔너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약 3개월 내에 권고안을 제출할 것인데, 그것은 의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1938년에 최저 임금을 국가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몇해 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생활임금이라 할 때 본인은 겨우 생존 수준 이상을 의미합니다—품위있는 생활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은 물가 상승율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보다 소득 격차가 더 극심하고 고약한 데는 없습니다. 패스트푸드 CEO들은 최고 보수를 받는 경영자들에 속합니다. 평균적 패스트푸드 CEO들은 2013년에 2380만 달러를 벌어서 2000년보다 4배 이상이 되었습니다(인플레이션 조정). 한편 뉴욕주에서 신입 푸드서비스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년 $16,920를 버는데 그것은 주 40시간으로 따질 때 시간당 $8.50에 해당됩니다. 전국적으로 패스트푸드 근로자들 임금은 2000년 이후 0.3% 올랐습니다(역시 인플레이션 조정).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은 가외의 용돈을 벌기 원하는 10대들이 대부분이라고 간주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73%가 여성이고, 70%는 나이가 20세 이상이며, 2/3 이상이 자녀를 양육하며 자기 가족 중에서 일차 소득자입니다.

패스트푸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다른 근로 가족과 비교할 때 공적부조를 받을 확률이 2배입니다. 전국의 패스트푸드 근로자들 중에 52%(어느 다른 산업에서보다 높은 비율)가 적어도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패스트푸드 근로자당 공적부조 지출이 1위로서, 년 $6,800입니다. 그것은 납세자들에게 년 7억 달러 비용입니다.

패스트푸드 산업 근로자들이 분명히 고전하고 있지만 산업 그 자체는 꽤 건강하여 작년에 전세계에서 1950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그것이 2018년에는 21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cDonald’s는 작년에 46억 70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Burger King은 2억 911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정부는 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여 그들이 인건비는 낮게, 이익 마진은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계 리더들은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버거와 프라이 가격이 스스로가 수입이 보통인 많은 고객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나라들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빅맥지수에 따르면 호주는 성인 패스트푸드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로 설정하였지만, 그곳 빅맥 가격은 미국의 $4.79에 비해 평균 겨우 $4.32입니다. 최저임금이 $12인 프랑스에는 McDonald’s가 1200여개 있습니다.

7명의 노벨 수상자를 포함하여 600여명의 경제학자들이 최저 보수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경제를 해치지 않는다는 늘어나는 컨센서스를 긍정하였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소비자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1달러 인상 마다 가구당 신규 소비자 지출이 $2,800 생기며, 2014년 이래 최저임금을 인상한 뉴욕주를 포함한 13개 주 중에서 1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임금위원회를 통해 뉴욕주는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을 빈곤을 벗어나는 길로 인도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며 새로운 전국적 기준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Roosevelt도 최저임금에 대한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말대로 그의 펀치를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그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이하 지불에 의존하는 기업은 이 나라에서 지속할 권리가 없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